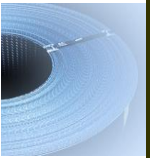


2007.5.21

POSRI CEO 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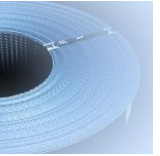
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지로 주목 받는 인도



지역연구센터 전체택 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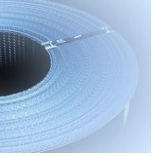
철강연구센터 김경찬 수석연구위원

Executive Summary



<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지로 주목 받는 인도>

- 인도 자동차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%씩 성장, 향후 10년간도 그 이상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
 - 현재 인도 승용차 시장은 로칼계 3사와 외자계 9사 등 12개사가 참여 중이고, 신규로 외자계 3사 진출하는 등 시장 확보 경쟁 치열
 - 높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동차 수요층 확대와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 구축이라는 인도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2016년에 세계 7위 자동차 생산 국가로 부상 예상
- 자동차 내수시장 성장 대응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로칼계 업체의 생산 설비 확장과 외국계 업체의 신규 진입 가속화
 - 북부 텔리곤, 서부 뭄바이곤, 남부 첸나이곤 중심으로 확장 및 신규 진입이 활발하여, 승용차 생산 능력은 2006년 164만 대에서 2010년 415만 대로 증가할 전망
 - 자동차 수출도 2010년까지 연평균 28%씩 증가해 2005년 17만대에서 2010년에는 50만 대를 넘어설 전망
- 철강업체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성장 및 자동차용 강판의 고급화 추세에 대비한 공급 방안 마련 필요
 - 자동차용 강판 수요 증가에 대응한 인도 철강업체의 고급강 생산 설비 확장 및 해외 철강업체의 현지 진출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전망
 -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증대 및 수출 확대에 따른 강판 수요 패턴 변화 등에 대한 대응 필요



목 차

I. 급성장 예상되는 인도 자동차산업	1
II. 인도 자동차산업의 성장 가능성	2
1.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 수요 증가	2
2. 정부의 강력한 자동차 수출 정책	3
III. 승용차 생산능력 확장 가속화	4
1. 시장 확보 경쟁 심화	4
2. 글로벌 메이커-고급 차종 투입	5
3. 승용차 생산능력 지속 증대	5
IV. 시사점	6
별첨 1. 인도 자동차 메이커별 생산 능력 확장 계획	7
2. 인도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	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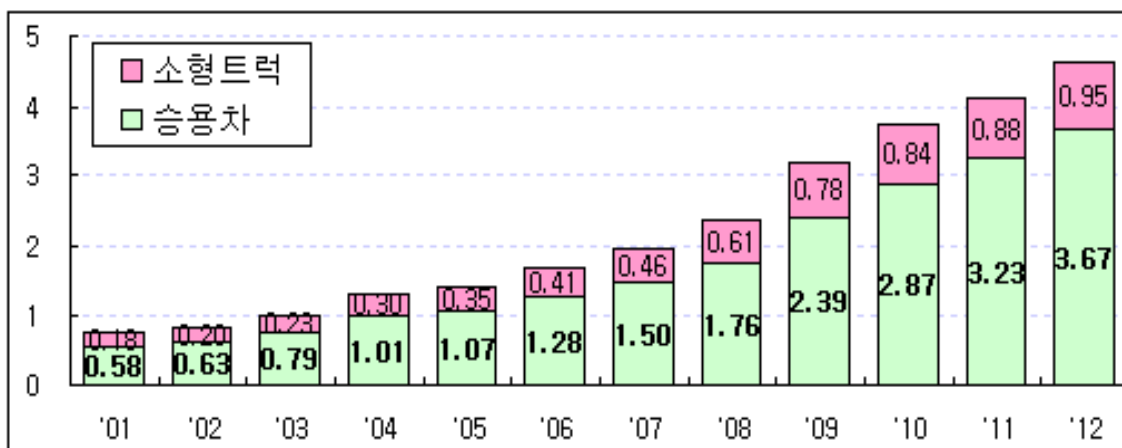
I. 급성장 예상되는 인도 자동차산업

□ 인도의 자동차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%씩 성장, 향후 10년간도 그 이상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

○ 승용차 및 소형트럭 생산은 2006년 169만 대에서 2012년 462만 대에 이를 전망 (향후 연평균 18.3%씩 성장)

<인도 자동차 생산 전망>

(단위: 백만 대)



□ 특히 승용차 생산 증가가 두드러져 2006년 128만 대에서 2012년에는 367만 대로 연평균 19.2%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

○ 현재 인도의 승용차 시장은 1,500cc 이하 소형차 비중이 73%이나 점차 대형화 추세

○ 대가족 중심의 가족 문화 영향으로 20% 이상을 차지하는 다목적용 자동차도 향후 꾸준한 수요 증가세 유지 예상

○ 한편 이륜차(2005년 760만 대 생산)와 삼륜차(2005년도 43만 대 생산)도 경제성장 지속 시 승용차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므로 승용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향상

II. 인도 자동차산업의 성장 가능성

1.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 수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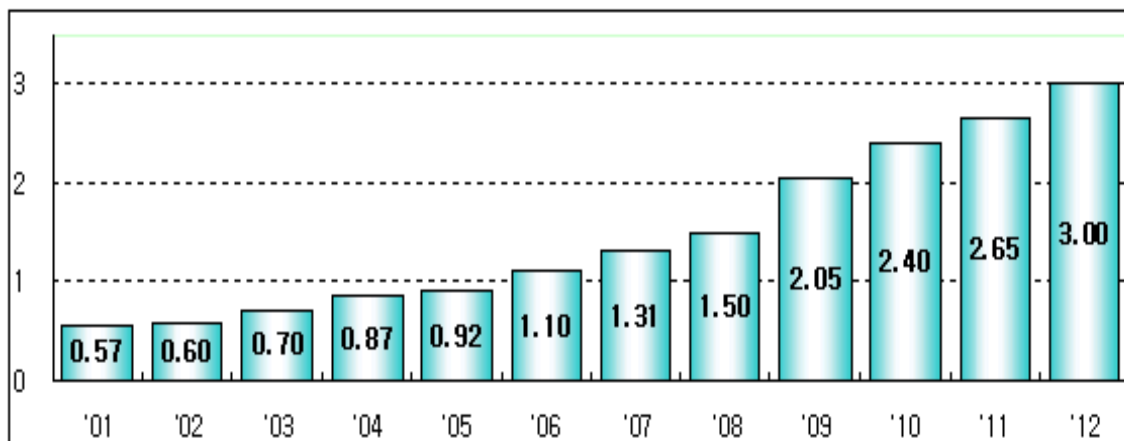
□ 높은 경제성장 지속으로 두터워진 중산층과 부유층의 구매력 증가가 자동차 내수판매 확대 견인

- 승용차 구매의 중심 계층인 부유층은 2001년 2,700만 세대에서 2006년 4,400만 세대(인도 전체 세대의 22%)로 확대되는 추세
- 인도 정부는 제11차 5개년경제계획(~2011년) 기간 중 연평균 경제 성장 목표를 9.0%로 설정, 당분간 도로 등 인프라 투자규모도 25%씩 증대시킬 것으로 보여 자동차 수요기반 강화 예상

□ 승용차 내수 판매는 연평균 18.2%씩 성장해 2012년에는 300만 대에 이를 전망

- 내수 증가로 천 명당 승용차 보유대수도 현재 8대에서 2011년 12대로 증가할 전망

<승용차 내수 판매량 전망> (단위: 백만 대)



2. 정부의 강력한 자동차 수출 정책

□ 인도 정부는 자동차산업 정책 방향을 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글로벌 거점화’로 정하고 적극 추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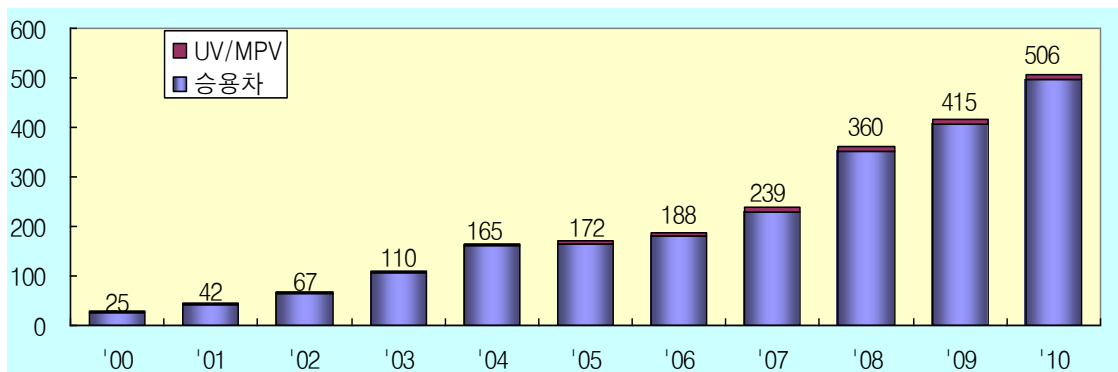
- 1997년 외자계의 승용차 사업 경영권을 허가한 이래, 2002년 소형차 및 부품의 수출 거점화를 목표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동 인가하는 ‘신자동차정책’ 발표
- 2006년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10년 장기계획인 Automotive Mission Plan(AMP) 초안 발표
 - 2016년 매출규모 US\$ 1,450억, GDP 비중 5%→10%, 2,500만 명 추가 고용, 세계 자동차 생산 순위 11위→7위 등 목표

□ 승용차 수출은 수출거점 육성정책 발표 시점인 2002년 이후, 연평균 29%씩 증가해 2010년 50만 대 초과 전망

- 수출 지역은 프랑스, 이탈리아, 터키, 러시아, 남아공, 케냐, 모잠비크, 아시아 신흥국 등이며 스리랑카, 남미,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확대될 전망
- 최대 수출 메이커 Hyundai는 수출 비율을 2005년 30%에서 2008년 50%까지 확대할 계획, Toyota는 2010년 생산 예정인 소형차를 유럽과 남미에 수출할 계획

<인도 승용차 수출 전망>

(단위: 천 대)



자료: 실적은 SIAM(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), 전망치는 자동차 메이커별 관련 정보 종합

Ⅲ. 승용차 생산능력 확장 가속화

1. 시장 확보 경쟁 심화

□ 현재 인도 승용차 시장은 로칼계 3사와 외자계 9사 등 총 12 개사가 참여해 시장 확보 경쟁 치열

- Maruti, Hyundai, Tata Motors 3사가 75% 이상 점유한 가운데, 로칼계는 일반차종에서, 외자계는 고급차종에서 판매경쟁
- 최근 Tata Motors가 석권하던 디젤엔진 승용차를 Maruti가 생산, Tata는 10만 루피(220만 원)대 600cc급 경승용차 개발하는 등 경쟁 더 치열
- 각 자동차사는 시장 확보 경쟁뿐만 아니라 수요증가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생산능력 확장 추진 중

<승용차 메이커별 능력 확장 계획>

(단위: 천 대)

	메이커	능력 (’06→’10년)		생산차종	비고
로칼계	Tata Motors	225	600	소형차	D Chrysler 7%
	Mahindra & Mahindra	50	150	UV/MPV	
	Hindustan	50	50	중소형차	미쯔비시 기술제휴
외자계	Hyundai	300	600	중소형차	현대차 100%
	Maruti	600	1,000	소형차	Suzuki 54.21%
	Toyota	60	260	중형차	Toyota 64%
	Honda Sael	50	150	중소형차	Honda 99%
	GM	80	220	중소형차	GM 86%
	Ford	60	80	중소형차	Ford 100%
	Fiat	60	60	소형차	Fiat 100%
	Skoda	30	50	중소형차	Skoda 100%
	D Chrysler	10	10	고급차	D Chrysler 100%

자료: SIAM, 자동차 메이커별 관련 정보 종합

2. 글로벌 메이커-고급 차종 투입

□ 기존 메이커 능력 확장 외에 신규진입도 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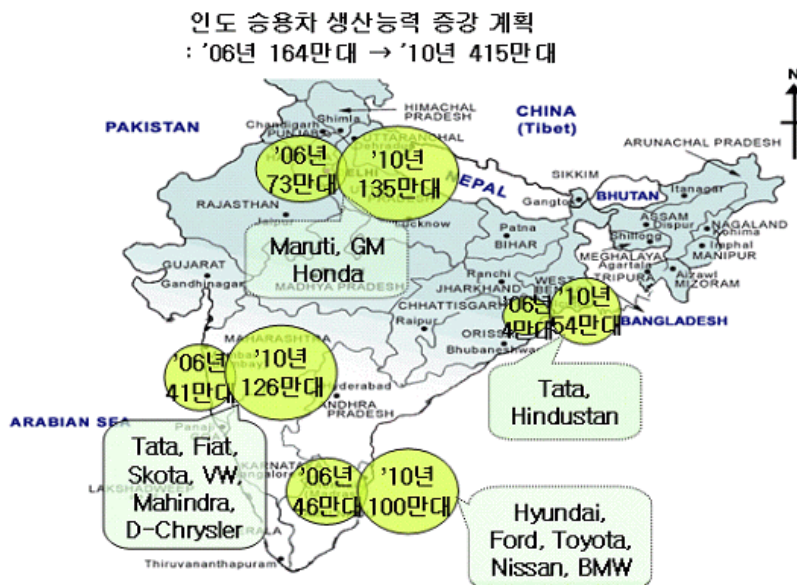
- 인도 승용차 시장의 주력이 경승용차에서 소형승용차로 전환 추세이고, 글로벌 메이커들은 최고 수준의 소형차 투입 추진
- Nissan, VW, BMW도 신규 인도 진출 발표로 경쟁 가속화 전망
 - BMW: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조립 공장 건설
 - VW: 마하슈트라주 푸네 지역에 신규 진출 예정
 - Nissan: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소형 승용차 신규 진출

3. 승용차 생산능력 지속 증대

□ 북부, 서부, 남부, 동부의 네 지역권을 중심으로 승용차 연간 생산능력은 2010년 415만 대까지 증대 전망

- 북부는 Maruti를 비롯한 GM과 Honda의 생산능력 확장으로 135만 대, 서부는 Tata와 Skoda 등 기존 메이커 외에 VW의 가세로 126만 대, 남부는 Hyundai, Toyota 증강과 Nissan 가세로 100만 대, 동부는 Tata의 소형차 공장 신설로 54만 대까지 증대 전망

<인도 지역별 승용차 생산능력 증강 계획>



자료: 자동차 메이커별 관련 정보 종합

IV. 시사점

□ 승용차의 내수증가와 글로벌 수출차 생산기지로 주목 받는 인도 시장에 자동차 업계의 진출 중요성 증대

- 양적 성장과 고급화 진전이 기대되는 인도 자동차산업에서, 글로벌 자동차사들과 경쟁을 고려한 생산능력 확장 및 시장 지배력 확보 전략 수립 필요

□ 자동차산업 성장에 따른 전후방 관련산업의 수요 확대에 대응한 시장 참여 필요

- 인도의 시장개방, FTA확대 등 글로벌 시장화 환경에 경쟁력 있는 자동차 관련산업에 진출

□ 철강업계는 자동차용 강판 수요 증가 및 고급화에 대한 공급 대응책 마련 필요

- 기존의 자동차사들 생산 능력 확대 및 신규 진입 자동차 메이커의 소재 구매 정책을 고려한 우호적인 고정 고객화 전략 마련
- 자동차업계의 소형차 수출 거점화 정책에 따른 강판 수요 패턴 변화에 대응한 현지 생산 등의 공급 정책 검토

전채택 (Tel 02-3457-8009, e-mail: jeonct@posri.re.kr)

김경찬 (Tel 02-3457-8156, e-mail: andrewkkim@posri.re.kr)

<별첨 1>

<인도 자동차 메이커별 생산 능력 확장 계획>

(단위: 천대)

	생산 능력		주요 내용
	현재	향후	
Maruti	600	1,000 (2010)	- 2008년까지 900억 루피(≈25억 달러) 투자해, 설비 업그레이드 및 신규공장 건설 - 제2공장 건설: 2007년 25만 대→2010년 40만 대 - Tata가 석권하고 있는 디젤엔진 승용차 생산 예정
Hyundai	250	600 (2008)	- 현 공장 생산효율화, 연산 30만 대 능력화 - 제2공장 2007년 6월 완공: 30만 대/년 - 소형차 수출 및 CAD의 R&D센터 기지화
Tata	225	600 (2010)	- 4년 내 1,000억~1,200억 루피 투자로 신증설 - 2007년 판매목표로 600cc급 소형차 개발 추진 → 10만 루피대로 승용차 보급에 활성화 기대
Honda	50	150 (2010)	- 10년간 300억 루피 투자, 2010년 15만 대로 확대 - 고급브랜드 이미지에서 소형차 추가 투입으로 판매 대수 확대 주력
Toyota	60	260 (2010)	- 합작사인 Toyota Kirloskar Motor와 공동으로 제2공장 건설, 소형차 생산 검토 - 2007년 소형차 본격 생산으로 5만 대→10만 대로 증강 → 2015년에 인도시장 15% 점유 목표
GM	80	220 (2010)	- 마하라슈트라주에 130억~135억 루피 투자로 현재의 두 배 능력 공장 건설
Ford India	60	80	- 능력 확장 위해 75백만 달러 투자
Skoda Motor	30	50	- 현 Aurangabad 공장에 54백억 달러 투자
Mahindra & Mahindra	100	150	- 1억 달러 투자해 R&D시설 통합 추진 → 제조과정 합리화 및 제품 개발기간 단축 기대 - 신규공장 건설 추진(르노와 합작)
BMW			- BMW는 타밀나두 첸나이에 고급차 조립 공장 건설, 2007년 초 생산 개시 - 초기 소규모(2천만 유로, 연산 1,700대, 종업원 150명) 투자 후 고급차 시장 확대에 맞춰 점진적 증가 추진
VW			- 안드라프라데시, 마하슈트라, 편잡주와 승용차 생산 프로젝트 협상 중
Nissan		268 (2008)	- 스즈키와 합작으로 소형 승용차 26.8만대 생산 능력 신규 진출

자료: 각 사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자료 종합

〈별첨 2〉

〈인도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〉

시기	내 용
1980년대 이전	▶ 자동차산업 규제(승용차사업 능력 증강, 생산모델, 해외기업과의 제휴, 유통, 가격 등)
1985년	▶ 승용차 가격 규제 폐지
1991년	▶ 비승용차 사업에 대한 외자투자액 상한 51% 상향
1993년	▶ 승용차사업 참여 자유화
1997년	▶ 승용차사업 외자투자액 상한 51% 상향
2001년	▶ 소비세 인하: 승용차 40%→32%, 이륜차 24%→16%
2002년	▶ 신자동차정책 발표: 소형차/부품의 수출 거점화 목표 - 100% 외국인직접투자 자동 인가
2003년	▶ 소비세 인하: 승용차 32%→24%, 상용차 32%→16% ▶ 수입관세 인하: 상용차 30%→25%, CKD 30%→25% - 승용차는 60% 유지
2004년	▶ 수입관세 인하: 상용차 25%→20%, CKD 25%→20%
2005년	▶ 수입관세 인하: 상용차 20%→15%, CKD 20%→15%
2006년	▶ Automotive Mission Plan(AMP) 초안 발표 - 소형차 소비세 인하: 24%→16% - 자동차 테스트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- 세금 혜택 강화

자료: SIAM 및 각종 보도자료 종합